

종회의원 비구니 의석 수 확대는 시대의 흐름

제10대 전국비구니회장 명우 스님

2011년 10월 17일, 전국비구니회관 범용사에서 진행된 제10대 전국비구니회장 선거는 불교계에 일대 변화를 예고하는 장이었다. 회장 선출은 사상 최초로 직선제로 치러졌고 이는 시대흐름에 맞춘 불교계의 변화를 단적으로 나타낸 증거였다.

쇄신을 앞둔 비구니계는 이제 비구니 종회의원 의석 증가를 비롯한 위상 강화, 역량 확대에 힘을 모으고 있다. 제10대 전국비구니회장 명우 스님을 2월 10일 전국비구니회관 범용사에서 유복연 종교와 젠더연구소장 등과 함께 만나 취임 이후 첫 인터뷰를 진행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스님께서는 직접투표를 통해 비구니회장이 되셨습니다. 비구니스님들의 열화와 같은 원력을 대변하여 해야 하기에 그 책임감 또한 막중할 것 같습니다.

회장 당선 이후 목적이 어떻게 하면 비구니회가 잘될지를 고민해왔습니다. 그동안 비구니회를 실질적으로 움직여 가면서 느낀 것이 많습니다. 언론과의 접촉을 피한 것은 회장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이제 이부승제도 있어서 비구니들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불교 미래를 위한 역할과 역량 확대의 논의가 필요할 때입니다. 2월 28일에는 '자성과 쇄신 결사의 비구니 승가의 위상과 역할' 토론회가 열립니다. 이를 앞두고 언론과의 접촉을 미룰 수 없기에 이번 인터뷰를 응하게 됐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모든 비구니들이 한마음으로 시대 변화에 발맞추겠다는 의지입니다. 이런 대중들의 의지에 저 또한 동참하고자 합니다.

비구니 회장직선제는 시대변화 '출타동시' '수처작주'로 역량확대 비구중심 종단운영 평등 아닌 차별 2월 28일 비구니 승가의 역할 토론

스님께서는 비구니회 발전을 위해서는 "비구니회와 비구니스님 한 분, 한 분이 출타동시(啞喙同時)로써 수처작주(隨處作主)의 장(場)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의미를 설명해 주십시오.

불교계에는 추대의 전통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전국비구니회 회장 선거에서는 수천 명의 스님들이 모여 직접 회장을 뽑는 선거가 진행됐습니다. 민주주의라는 시대적인 흐름에 맞춰 시대 변화를 이끌어 내야만 역동성 있는 비구니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출타동시는 알 속의 병아리가 세상을 나올 때 한 부위를 정해 쪼기 시작하면 어미닭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같은 부위를 밖에서 쪼아 줌으로써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즉 안(內)과 밖(外)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국비구니회를 비롯한 비구니승가는 변화의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사상 최초로 진행된 회장 선거가 그 증거라 할 수 있겠습니다. 회관에 수많은 스님들이 모여 비구니승가의 발전을 함께 고민했습니다.

출타동시는 이처럼 안에서 이는 비구니의 열망을 한데 모아 긍정적인 힘을 더해 새로이 깨어나는 전국비구니회로 만들어 가자는 의미입니다.

수처작주는 가는 곳 마다 주인이 되자는 것입니다. 6000 여 비구니들이 모두 비구니회의 주인으로서 한마음으로 비구니 승가, 또 시대변화를 이끌어 가자는 의미입니다.

전국비구니회는 '대한불교비구니우담바라회' (1968년)가 그 효시로 알고 있습니다. 비구니승가 대표 단체로 많은 불교교가 비구니스님들이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한국비구니승가의 저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전 세계적으로 비구니들이 조직체를 이루고 활동이 번창한 곳이 드뭅니다. 한국불교에 비구니 승가가 자리 잡을 수 있게 된 것은 수행과 교육 체계가 잘 돼 있기 때문입니다. 비구니들이 따로 모여 수행하고 교육을 받는 곳은 대한민국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무엇보다 비구니 선배스님들과 당대 큰스님들을 비롯한 여러 스님들이 열린 생각으로 후학 양성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비구니 선방에는 매해 안거 결제 때면 1000여 비구니들이 방부를 들입니다. 강원으로 눈을 돌려도 이러한 모습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각 강원마다 수많은 비구니들이 수행과 함께 공부에 매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해외 유학 등을 통해 한국불교의 발전을 모색하고 있는 비구니들도 많습니다.

사회활동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비구와 동등하게 인정을 받고 있는 부분은 고무적인 일입니다.

겉으로는 화려해보이지만 내부를 들여다보면 안타까움도 없잖아 있습니다. 비구 중심의 종단 운영에서 오는 차별이 그 중 하나입니다. 비구니로서 종단에서 스님으로서 의무만이 있지 권리는 전혀 없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비구니 승가의 역할에 비해 종단 참여가 그리 활발하지 못해서 회장스님의 선거공약에도 비구니 참정권 확대에 대한 공약들이 있습니다. 그 공약 실천의 출발점으로 비구니 위상정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토론회인지요?

선거법 개정을 앞두고 비구니 참정권 확대에 대한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열리는 비구니계의 토론회에 교계의 시선이 몰리고 있습니다.

토론회는 크게 종단에서 진행 중인 자성과 쇄신을 위한 결사의 일환으로 추진됩니다. 교단내 비구니 승가 위상 정립, 성평등 교단, 자성과 쇄신 결사의 의미에 대한 비구니계의 진지한 담론이 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구니계는 자성과 쇄신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비구니 스님들도 동참해야 한다는 의지입니다. 한국불교를 변화시키는데 토론 등을 통해 비구니 승가도 적극 참여하자는 의미입니다.

또 다른 의미는 종단 내에서 비구니 승가의 위상 정립을 위한 것입니다. 올해는 조계종 창종 50주년의 해입니다. 사부대중이 소통과 화합하며 그 속에서 비구니 승가의 역할을 찾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발맞추기 위해서는 비구니 승가 자체적으로 이에 대한 임박 및 연구 활동이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월에 진행될 임시총회에서 종원·종법 상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 부분이 개정됐으면 합니다.

7~10대 종회의원을 역임하셨습니다. 회장 선거 공약으로도 비구니 스님들의 원력을 모아 종단에 종회의원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비구니 종회의원 확대는 먼저 비구니 위상 정립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992년 조계종 제10대 총회에서 비구니 종회의원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당시에는 비구니 의석은 1자리에 불과했습니다. 이후 3명·5명·10명 등으로 점차 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조계종 내에서 비구와 비구니의 수는 비슷합니다. 수행, 포교현장에서 비구니들의 고충을 종단 내부로 전달하고, 이에 맞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현재 비구니 의석은 전체의석의 1/8 수준입니다. 사회에서는 최근 여성의 사회진출과 역량 확대로 국회의원의 1/3을 여성에게 할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흐름이 시사 하는 바가 큼니다. 화합종단을 위해 비구 스님들과 지속적으로 논의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의 사회 참여가 활발하며 점차 여성에 불리한 제도나 법들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 이면에 여성들 자체의 의식변화가 있었습니다.

저는 비구니 역량확대에 대한 목소리를 내는데 먼저 수행자 본분을 잊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가 승가에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통찰력은 스스로를 돌아보고 점검하는 수행의 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가 출가 수행자라는 마음이 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것을 게을리 하면 안 됩니다.

안거 해제 이후 복지관이나 병원에서 호스피스 봉사활동을 하는 등 사회 다양한 곳에서 수행정신으로 묵묵히 할 일을 하는 비구니스님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알려지지 않았을 뿐입니다. 수많은 비구니스님들이 불교계 현장에서 실무를 맡아 원력을 갖

호스피스 등 사회 곳곳 비구니 활동 "한국 비구니 조직·수행·교육 체계 해외 불교부 부러워 할 정도" 여성 불자들도 함께 '수레축' 되길

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비구니스님들 중 범문을 잘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교계 언론에서 먼저 비구니 소식관을 만들어서 비구니 스님들의 모습을 보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비구니스님의 활동이 적게 다뤄지는 것 같아 아쉽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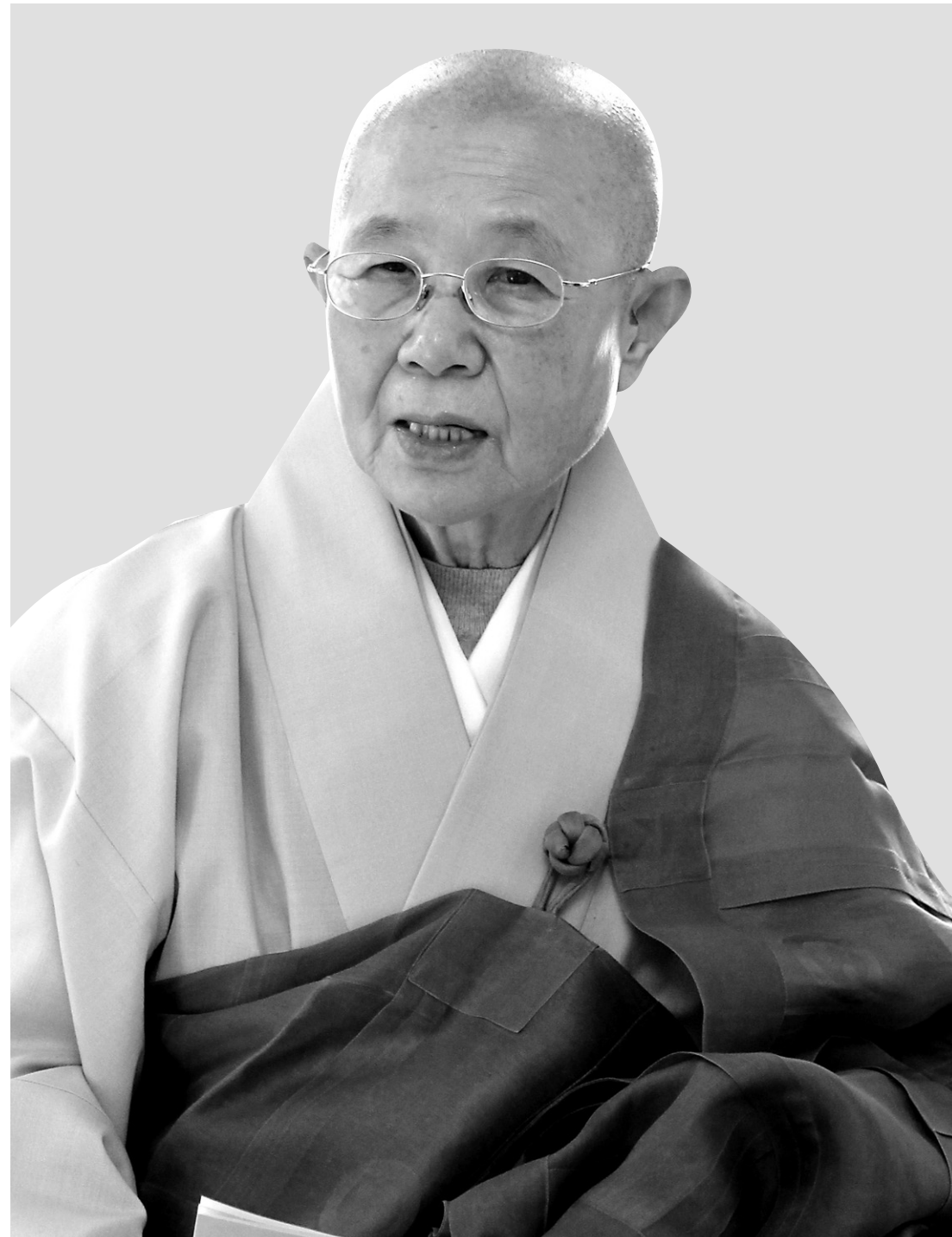
비구니 최초로 종합학교 교법사를 비롯해 조계종 상임포교사를 맡으셨습니까.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일이었다고 생각 됩니다.

당시에는 조계종 종단이 굉장히 시끄러울 때입니다. 썬 중정 법전 스님이 임시 총무원장으로 계실 때였습니다. 이 때만해도 종합학교 교법사는 재가자들이 주로 할 때였습니다. 동국대 불교대학을 졸업하고 명성여고 교법사로 가게 됐습니다. 교법사 활동을 수년간 진행하고 무진장 스님이 포교원장으로 있을 당시 삼성포교원 지광 스님 등과 함께 상임포교사로 임명받았습니다.

이후 포교사 연수교육이 시작됐는데 상임포교사로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포교사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러 상임포교사로서 조계사 범당에서 범문을 했습니다. 당시로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비구니가 조계사 범당에 선 것은 당시 최초였습니다. 지금으로서도 조계사 범당에서 비구니가 범문을 하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 후 일초 스님 등 비구니 스님 몇 분이 수계식 등에서 범문을 했습니다. 이처럼 종단 안팎으로 어려웠던 당시임에도 큰 스님들의 비구니에 대한 열린 마음과 배려가 있었습니다.

전국포교사단에서는 비구니가 부당장을 맡아야



명우 스님은 ... 서산 개심사 성능 스님 문하에서 사교과, 김천 청암사 고봉 스님 문하에서 대교과를 수료했다. 동국대 불교학과를 졸업하고 동화사 내원암 등에서 수선 안거한 이래 10여년간을 성만했다. 명성여고 교법사 및 한문교사 역임, 조계종 중앙포교원 최초 상임포교사, 7·8·9·10대 중앙종회의원, 단일계단 특별구족계 갈마위원, 전국포교사단 부단장, 목동청년수련관 관장, 학교법인 광동학원 이사,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위원, 전국비구니회 운영위원장을 역임했으며 조계종 특별계단 존중사사리이다.

한다는 목소리에 부당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이런 과거 비구니들의 작은 발자국 하나하나가 지금의 비구니 위상과 연결되는 만큼 지금의 행보도 미래 비구니 위상과 불교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비구니 위상 정립에는 재가 여성들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불교여성개발원 5차 108인 선정식에 참석해 축사를 했습니다. 사회 각 분야에서 많은 활동하는 여성 불자들이 108인으로 선출돼 불법홍포를 서원하는 것을 보고 가슴이 벅찼습니다. 앞으로도 여성 개발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단체, 현장에서도 우바새 우바이들이 각자 서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부처님 가르침을 잊지 않고 행했으면 합니다.

서로 협조해가며 탁마 상승해 여성 불자와 비구니가 불법의 수레의 바퀴 축으로 힘차게 굴러가는데 일조했으면 합니다.

요즘 세대는 연애·결혼·출산을 포기한 삼포세대라고 불립니다. 특히 여성들의 경우는 이런 문제가 더욱 와 닿는데, 오늘날을 살아가는 여성들에게, 또 불자들에게 지혜의 말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화엄경> '아미전궁보살설게품'을 보면 요즘 세대에 대해 주고 싶은 좋은 계승이 있습니다.

심어공화사(心如工畫師) 능화제세간(能畫諸世間) 오은실종생(五蘊悉從生) 무법이부조(無法而不造)

마음은 그림을 그리는 화가와 같아서 능히 모든 세상을 다 그리네. 오온이 모두 마음으로부터 생기면 만들지 않는 것이 없네.

여심불역이(如心佛亦爾) 여불중생연(如佛衆生然) 응지불어심(應知佛與心) 체성개무진(體性皆無盡)

마음과 같이 부처도 또한 그러하면 부처와 같이 중생도 또한 그러하네. 응당히 알라 중생들이여 부처와 마음은 체성이 모두 끝이 없나니라.

우리는 항상 타인과 비교하며 번뇌 속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불자 여성분들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집니다. 어디에 이끌려 따라가기보다 자신을, 스스로의 마음을 한번 씩 돌아봅시다.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DX-707 스탠드 마이크는 1개만 사용해도 법당의 소리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스님! 법당의 앰프 소리가 마음에 안드십니까?
지금 즉시 - 전화주세요... (27년간 전국 870여 사찰에 설치)

소장: 김문화(海月) 직접설치
音響研究家 無線設備技師

DX-707 스탠드 마이크

◆특징: 어떠한 앰프에 연결해도 뛰어난 음질, 음질 보장 자체에서 소리, 음질 조절
◆가격: 250,000원 (택배비 포함)

법당전용 스피커

◆특징: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가격: 500,000원

POWERED MIXER 앰프

PM-805

스테레오 앰프 300AN

高音質 무선마이크

일반 마이크 V-606LC

◆가격: 65,000원 (택배비 포함)

고성능 탁상마이크

◆가격: 135,000원(일반형)
◆가격: 175,000원(고급형)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0-5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 전화 (02)2697-9976 / 팩스 (02)2601-8284 홈페이지 www.yukosound.com